

創刊 記念辭



서성배
(사)한국계육협회장

창간 12주년에 즈음하여...

닭고기 산업과 관련해 업계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발행된 ‘월간 닭고기’가 어느덧 창간 1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월간 닭고기의 성장을 위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회원사 그리고 관련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정보지로서의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2살이라는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월간 닭고기’가 국내 계육산업의 성장과 함께 해왔다는 것과 업계를 선도해나가는 정보지로 든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지하다시피 ‘월간 닭고기’의 성장은 국내 닭고기 산업의 발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월간 닭고기’가 탄생할 당시인 1995년도에는 국내 계육산업이 태동기를 벗어나 성장기로 접어드는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내 닭고기 산업의 주축이 된 육계 계열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기였던 만큼 ‘월간 닭고기’와 같은 정보지의 필요성이 대두돼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월간 닭고기’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월간 닭고기’는 국내 닭고기 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각종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를 비롯하여 정부정책, 사양, 가공, 도축, 유통 등 섹션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족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 국내 축산업계는 ‘한·미 FTA’ 타결을 앞두고 극심한 혼

란에 빠져 있으며 정부정책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닭고기 산업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업계는 ‘한·미 FTA’ 이외에도 ‘포장유통 의무화’ ‘닭고기 등급판정’ ‘자조금사업’ ‘AI 대책마련’ 등 해결해야 할 대형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닭고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회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문제해결이 요원하기 때문에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와 관련, 협회에서는 국내 닭고기 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확보방안 일환으로 농가시설 현대화 자금지원, 계열화 업체 지원 확대, 도계장 시설현대화 지원, 닭고기 판매 음식점 원산지 표시확대, 브랜드 닭고기 지원강화 등을 정부측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당국의 보완대책 안으로 제시된 것은 사육농가 HACCP 시행을 비롯해 포장유통 시행 확대, 수출지원 등 우리의 요구에 못미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장유통 의무화, 닭고기 등급판정과 관련해서도 절충안을 가지고 정부측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나 회원사들의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부적인 의사협의를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회원사들의 조그만 양보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伏) 대목이 지나면 다시 AI의 악몽이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라도 우리의 역할을 무엇인지 항상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AI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각 회원사들도 계약사육농가에 이러한 상황을 주지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협회에서 풀어나가야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월간 닭고기’가 계육업계의 대변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월간 닭고기’는 국내 닭고기 산업의 올바른 방향제시를 위해 더욱 성심껏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